

정답 및 해설



- | | | | | |
|-------|-------|-------|-------|-------|
| 1. ① | 2. ④ | 3. ④ | 4. ④ | 5. ③ |
| 6. ② | 7. ① | 8. ④ | 9. ④ | 10. ③ |
| 11. ⑤ | 12. ⑤ | 13. ③ | 14. ⑤ | 15. ⑤ |
| 16. ④ | 17. ② | 18. ⑤ | 19. ③ | 20. ① |
| 21. ① | 22. ① | 23. ③ | 24. ⑤ | 25. ② |
| 26. ① | 27. ② | 28. ⑤ | 29. ① | 30. ① |
| 31. ② | 32. ② | 33. ④ | 34. ③ | 35. ⑤ |
| 36. ① | 37. ④ | 38. ① | 39. ④ | 40. ① |
| 41. ② | 42. ⑤ | 43. ③ | 44. ② | 45. ③ |
| 46. ④ | 47. ③ | 48. ⑤ | 49. ② | 50. ② |
| 51. ④ | 52. ④ | 53. ⑤ | 54. ① | 55. ④ |
| 56. ② | 57. ② | 58. ③ | 59. ③ | 60. ⑤ |

듣는 내용은 www.edutopia.com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듣기 · 말하기

1. 1번! 이제부터 이야기 한 편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영선이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와 철부지 중학생 손녀딸이 맞는 아침은 늘 부산하기만 했습니다.

오늘따라 늦잠을 잔 터라 할머니와 영선이는 찬밥으로 겨우 아침을 해결하였습니다. 영선이가 부랴부랴 학교로 간 뒤, 할머니는 도시락을 챙겨 보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불편한 손으로 손녀가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껏 마련하여 도시락을 썼습니다.

학교까지는 몸이 성한 사람도 이십 분이냐 걸릴 만큼 먼 거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영선이가 점심을 굶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점심 시간이 시작되고 10분이 지나서야 할머니는 영선이네 교실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선이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도시락을 영선이의 자리에 올려놓고 조금은 섭섭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서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방 한가운데에 밥상이 얹전하게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밥상보를 가만히 들어 올렸습니다.

밥 한 그릇과 반찬 두 가지, 그리고 곱게 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가사 실습을 했어요. 제가 정성껏 만든 거니까 제 걱정 마시고 맛있게 잡수세요.’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가 점심을 거르실까 봐 영선이가 다녀간 것이었습니다. 영선이가 차려 놓은 밥상을 보며 할머니는 차마 수저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밥은 식어 갔지만, 밥상에 가득한 손녀와 할머니의 마음은 식지 않았습니다.

교훈적 의미의 파악

정답 ①

할머니는 중학생 손녀딸인 영선이가 점심을 굶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편한 몸으로 도시락을 싸서 학교까지 걸어가 영선이의 자리에 도시락을 갖다 놓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얹전히 놓인 밥상을 보게 된다. 영선이가 학교에서 가사 실습으로 만든 음식으로 할머니의 점심을 챙기고자 점심도 거르고 밥상을 차려 놓고 간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점심을 먹을 수 없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훈훈한 감동을 안겨 준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② ‘공경’이라는 말은 ‘공손히 받들어 섬김’의 뜻이므로, 할머니에 대한 영선의 태도는 가능하지만, 영선에 대한 할머니의 태도로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2. 2번! 이번에는 과학 강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지역의 깊은 호수에서는 계절에 따라 물의 상하 이동이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호수의 물은 깊이에 따라 달라지는 온도 분포를 기준으로 세 층으로 나뉘는데, 상층부는 표층, 바로 아래는 중층, 가장 아래 부분은 심층이라고 합니다.

여름에는 대기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표층수의 온도도 높습니다. 따라서 표층수의 하강으로 인한 중층수나 심층수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층수나 심층수의 온도가 표층수보다 낮고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대기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표층수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이 최대 밀도가 되는 섭씨 4도에 가까워지면, 약한 바람에도 표층수가 아래쪽으로 가라앉으면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아래쪽의 물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가을 전도’라고 부르지요.

겨울에는 여름과 반대로 표층수의 온도가 중층수나 심층수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밀도는 중층수와 심층수가 더 높기 때문에 여름철과 마찬가지로 물의 전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의 전도 현상은 봄이 되면 다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얼음이 녹고 표층수의 온도가 섭씨 4도까지 오르게 되면 표층수는 아래 쪽으로 가라앉습니다. 반면에 아래쪽의 물은 위로 올라오게 되지요. 이것을 ‘봄 전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전도 현상을 통해 호수의 물이 자연스럽게 순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 정보의 확인

(정답) ④

‘가을 전도’란, 가을이 되어 대기의 온도가 낮아지다가 표층수의 온도가 섭씨 4도까지 떨어질 때,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아래쪽의 물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④이다.

3. 3번! 이번에는 두 학생이 나누는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 : 애, 숙제했니? 선생님께서 토론 주제를 준비해 오라고 하셨잖아. 난 인터넷에서 ‘저무는 육필의 시대’라는 기사를 찾았거든. 그걸 정리해 가려고 하는데, 넌?
남 : 음, 아직 마땅한 게 없어서 고민하는 중이야. 그런데 육필이 뭐야?
여 : 아이구 참, 손으로 글을 쓰는 걸 ‘육필’이라고 하잖아. 컴퓨터로 쓰는 건 ‘디지털 글쓰기’라고 하고.
남 : 그럼 우리는 디지털 글쓰기 세대가?
여 : 그런 썸이지. 컴퓨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글씨체도 엉망이 됐잖아.
남 : 그래서 선생님께서 우리한테 천재라고 하셨구나. 천재는 악필이라면서?
여 : 나 참. 그나저나 너는 디지털 글쓰기의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니?
남 : 음, 우선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빨리 쓸 수 있고, 또 쉽게 고칠 수도 있고. 그래서 누구나 쉽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거 아닐까?
여 : 맞아. 기존의 글쓰기는 소수의 전유물이었는데, 디지털 글쓰기 덕분에 누구나 쉽게 글을 쓰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글쓰기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지.
남 : 글쓰기의 민주화라……. 거창하기는 한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누구나 쉽게 글을 쓸 수 있게 됐다는 건, 그만큼 글이 가벼워졌다는 거 아니냐? 생각해 봐. 우리 주변에도 그런 글들이 넘쳐 나잖아.
여 : 하긴, 디지털 글쓰기 때문에 옛날보다 진지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 적어진 건 사실이야. 남의 글을 베끼기도 쉬워졌고.
남 : 이 정도면 되겠다. 우리 이걸로 숙제 내자.
여 : 뭐, 우리?
남 : 그래, 함께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같이 내자, 응?
여 : 너도 참…….

● 미루어 알기

(정답) ④

남학생은 여학생과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과제물로 제출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을 살펴보면 두 사람이 제출했을 과제물의 제목을 추리할 수 있다.

여학생은 과제물로 ‘저무는 육필의 시대’라는 기사의 내용을 정리하여 토론 주제를 준비하려고 한다. 그리고 남학생과 대화를 나누면서, 육필의 의미와 이에 대응되는 디지털 글쓰기의 개념을 언급하고, 디지털 글쓰기의 장점과 폐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과제물의 제목으로는 ④ ‘디지털 글쓰기의 장단점’이 적절하다.

4. 4번!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즐겨 부르던 ‘마징가 제트’와 같은 만화 영화 주제가들은 상당수가 일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만화가 우리 나라에 수입될 때는 약간 변형되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변화를 통해 당시 두 나라의 사회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70년대에 유행했던 ‘캔디’라는 만화 영화를 예로 들어 볼까 합니다.

먼저 한국 노랫말을 들어 볼까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이번에는 일본 노랫말을 들어 보세요.
“주근깨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아. 납작코이긴 하지만 마음에 들고.”

같은 곡의 노랫말인데도 그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원곡의 캔디는 당당하고 발랄한 딸팔랑이지요. 그런데 우리말로 된 노랫말에서는 느닷없이 슬퍼도 울지 않고 참아 내는 성숙한 소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것이 70년대 두 나라 여성의 위상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캔디’가 만들어졌을 당시의 일본은 전후 최고의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요구되었겠죠. 만화에서도 캔디는 대들고 싸워 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적극적이고 활달한 소녀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만화 영화가 수입되었을 당시 우리 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보수적인 고정관념도 일본에 비해 상당히 컸고요. 결국 순종적인 여성상을 요구했던 당시의 전반적인 사회 의식이 노랫말에 투영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 발화 내용의 판단

(정답) ④

강연에서는 ‘캔디’라는 만화 영화의 노랫말이 당시 일본과 우리 나라에서 다르게 만들어진 이유를, 당시 두 나라

의 사회적 분위기와 그로 인한 사회 의식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즉, ‘켄디’가 만들어졌을 당시의 일본은 전후 최고의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었으므로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요구되었지만, 우리 나라는 그렇지 못하여 순종적인 여성상을 요구하는 사회 의식이 투영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④와 같이 두 나라 만화 영화의 노랫말을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대비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5~6] 5번과 6번! 이번에는 라디오 인터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여) : 오늘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역사 소설 『곽재우』의 작가 이철수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가(남) : 예, 반갑습니다.

진행자(여) : 지금 선생님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 『홍의 장군-곽재우』가 방송되고 있는데요. 드라마는 자주 보시는지요?

작가(남) : 예,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곽재우 장군의 영웅적인 면모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액션 장면이 많아서 무협물 같기도 하고…….

(웃음)

진행자(여) : 그런데 곽재우 장군은 역사 속에 실존했던 영웅적인 인물인데, 그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 문제가 되나요?

작가(남) : 예, 드라마 연출자는 연출자대로 그 나름의 관점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한 영웅의 개인적인 고뇌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 싶었습니다.

진행자(여) : 아…… 예. 드라마와 선생님의 작품 사이에 약간의 시각차가 있는 셈이군요. 그렇다면 곽재우 장군의 개인적인 고뇌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작가(남) : 저는 사실 제 작품을 통해,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물결 앞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곽재우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를 버려 두고 의병장으로 거듭나기까지의 고민을 들여다보고 싶었던 겁니다. 가족의 운명, 생이별과 재회, 뭐 그런 걸 한번 그려 보자는 게 제 의도였죠.

진행자(여) : 선생님 말씀은, ‘홍의 장군 곽재우’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을 그려 보고 싶었다는 뜻으로 이해되는군요. 그럼 청취자들을 위해 곽재우 장군이 어떤 분이었는지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가(남) : 잘 아시겠지만 곽재우 장군은 조선 중기인 1552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경상도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켜 많은 전공을 세우셨지요. 어쩌나 날래고 용맹했던지, ‘홍의 장군’이란 소리만 들어도 왜병들이 줄행랑을 쳤다고 합니다.

진행자(여) : 아, 그렇군요. 저도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작품과의 만남이 인간 곽재우를 이해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실 텐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가(남) : 네, 고맙습니다.

5. 발화의 핵심 내용 파악

(정답) ③

작가는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가 곽재우 장군의 영웅적인 면모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원작에서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곽재우 장군의 개인적인 고뇌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작가가 작품을 통해 추구하고자 한 바는 ③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 말하기 방식의 파악

(정답) ②

진행자는 작가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청취자의 이해를 고려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을 뿐, 작가와 다른 관점에서 드라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① 진행자는 청취자들을 위해 곽재우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작가에게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③ 작가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곽재우 장군의 개인적인 고뇌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다.
- ④ 작가는 드라마가 곽재우 장군의 영웅적인 면모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어 무협물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
- ⑤ 작가는 청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태어난 시기와 의병장으로서의 활약 등을 언급하고 있다.

쓰 기

7. 광고 문구의 추리

(정답) ①

<보기>를 모두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자. 물이 오염되었음을 나타낸 상단의 그림은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로 혼탁해져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며, 하단 왼쪽의 그림은 경기 중 반칙을 하는 사람으로 인해 정정당당한 경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 준다. 또, 하단 오른쪽 그림의 ‘썩은 이’는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 사회를 상징한다. 이러한 세 개의 그림 자료를 모두 활용하면, ①이 가장 적절한 광고 문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단순히 경쟁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단 왼쪽의 그림과 일부 통하는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그림이 ‘맹목적인 경쟁’을 문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두 그림과는 관련이 없다.

8. 개요의 수정 방안

(정답) ④

‘II-2’의 하위에 있는 ‘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출 경쟁력 약화’와 ‘나. 소비자 물가 상승과 국민 실질 소득 감소’

의 두 항목을 보면, 이들은 모두 고유가로 인해 문제가 되는 현실을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II-2.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왜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에 초점을 둔 항목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II-3-나-1'의 '대체 에너지 개발'은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 방안'에 해당하므로, 'II-2'로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II-1. 고유가 시대의 수출 전략'은 '대처 방안'의 하위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대처 방안', 곧 '문제 해결 방안'이 'II-2. 대책 마련의 필요성' 앞에 오게 되면 논지가 어색해지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9.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㉔의 '체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하기'와 '규칙적인 운동 습관 갖기'는 '청소년 개인'이 자신의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해결 방안)이다. 그런데 <보기>의 '주제'를 보면, 쓰고자 하는 글의 예상 독자는 '정부와 체육 관련 단체'이므로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0. 조건에 맞는 표현

(정답) ③

<보기>를 보면 '상대방'은, 낙서가 인간의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며 집단 구성원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하게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낙서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대방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면서 자연스럽게 반론을 시작한 것은 ③이다. 곧, 첫째 문장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론을 시작하고, 둘째 문장에서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문장의 '얼굴을 더럽히는(→ 명예나 체면을 손상시키는)'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①은 상대방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②와 ⑤는 상대방의 의견에 전면 반대하고 있어, 첫째와 둘째 조건에 어긋난다. ④는 첫째, 둘째 조건은 충족하지만 셋째 조건인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지 않았다.

11. 바꿔 쓰기의 적절성

(정답) ⑤

<보기>의 우화는 유연한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우화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강압적인 힘에 굴복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고난을 이겨내는 이야기를 추가해야 한다. 그런데 부러진 참나무가 튼튼한 건축재로 거듭난다는 ⑤의 이야기는 유연한 삶의 자세와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바꿔 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12. 고쳐 쓰기 방안의 적절성

(정답) ⑤

② '틀림없이'는 '조금도 어긋나는 일이 없이'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수도 있다'와 같이 가능성을 염두에 둔 표현과는 함께 쓰일 수 없다.

③ '땀다'는 형용사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

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인 '미워하다'의 활용형 '미워해서'로 바꿔야 한다.

④ '폴리다'의 '-리-'는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어지다' 역시 피동의 뜻을 더해 주므로, '폴러지다(폴- + -리- + -어지다)'는 이중 피동형이다. 따라서 ㉔은 피동사 '폴리다'의 활용형인 '폴리도록'이나 '폴러지도록'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⑤ '그런데도'는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이는 접속어 '그런데'에 조사 '도'를 붙인 것이다. <보기>의 마지막 문장은 바로 앞 문장의 내용에 덧붙여 '말할 것도 없이 ~이 가장 좋다'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물론'으로 연결해야 한다.

13. 국어의 문장 구조

(정답) ③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홀문장(한 문장에 서술어가 하나만 나타나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맺어지는 문장)을 '안긴 문장'이라 하며, 이 홀문장을 포함한 문장을 '안은 문장'이라고 한다.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각각 관형절로 안긴 문장(ㄱ), 명사절로 안긴 문장(ㄴ), 부사절로 안긴 문장(ㄷ)으로, 각 문장에서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의 구실을 한다.

③ ㄱ의 밑줄 친 부분에서 서술어는 '흐르는'이다. '흐르는' 것은 당연히 액체일 것이므로, 주어는 '담장'이 아니라 '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4. 혼동하기 쉬운 단어의 구별

(정답) ⑤

① '금방'은 '조금 뒤에 곧'을, '방금'은 '바로 조금 전'을 뜻하므로 둘 다 바른 문장이다.

② 앞문장은 재난을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해 준다는 의미이므로 '구조'를, 뒷문장은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 낸다는 의미이므로 '구원'을 쓰는 것이 맞다.

③ 앞문장은 놀랍고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당황'을, 뒷문장은 그의 이야기가 참되지 않고 터무니없다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황당'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④ 앞문장은 성질을 다르게 하여 바꾼다는 의미이므로 '변환'을, 뒷문장은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하여 바뀌었다는 의미이므로 '변천'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⑤ 앞문장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한다는 의미이므로 '분별'을 써야 하고, 뒷문장은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본다는 의미이므로 '식별'을 써야 한다.

현대시

[15~19]

(가) 이용악, 「낮은 집」

(나) 곽재구, 「은행나무」

15.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답] ⑤

(가)는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궁핍한 삶을 이웃집의 이야기를 통해 형상화한 서사적 성격의 시이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어조를 통해 드러나듯이, 과거 사건의 전개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은행나무와 은행잎이 깔린 보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대하고,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한 세상이 절망적이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나)에는 과거 사건의 전개 과정이 잘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⑤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① (가)의 ‘재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실이에 늙은 둥글소’, ‘노루 뗏돼지 쪽제비 ~ 뛰어다니던 시절’, ‘분주히 일하는 방앗간 한구석’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④ (가)는 ‘낡은 집’에 살았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나)는 ‘은행나무’를 바탕으로 시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16. 시어의 상징성 이해와 적용

[정답] ④

(가)의 ‘찾길’은 일제가 우리 민족을 수탈하기 위해 만든 신작로라는 점에서, ‘찾길’은 부정적인 어감을 띠는 시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의 ㉠~㉣ 중, 이러한 부정적인 속성이 담겨 있는 부분은 ㉢이다.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와 ‘다시 이 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선다 해도’라는 시구로 볼 때, ㉢은 부정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시적 화자는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17. 자료를 적용한 이해 및 감상

[정답] ②

<보기>의 자료를 적용하여 이해·감상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유형이다. <보기>에 시인(이용악)의 아버지가 객사(客死)했다는 정보가 언급되어 있지만, 이를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과 연결시켜 시적 화자의 아버지가 객사했다는 상황과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의 시적 화자는 ‘나’로 등장하는데, 이 시에서 ‘당나귀 몰고 간 애비’는 ‘나의 동무’의 아버지이다. 이 시구는 집안 형편이 궁핍하여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처지를 드러낸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18. 작중 상황의 이해와 적용

[정답] ⑤

[A]의 ‘저름등이 시름시름 ~ 털보의 눈도 일층 불터란다.’는 자식이 태어나도 궁핍한 형편 때문에 시름만 커져가는 ‘털보’의 비참한 처지를 형상화한 부분이다. ‘저름등이 시름시름 타들어 간다’는 표현과 붉은 ‘털보의 눈’을 통해, 시름으로 인해 타들어 가는 ‘털보’의 비참한 심정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처럼, 털보의 대사를 ‘걱정 말구려’, ‘고놈, 참 잘도 자네.’라는 식으로 구성하는 것은 시의 맥락과 어울리지 않는다.

19. 시구의 의미 및 표현 이해

[정답] ③

‘자기 뭇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자기 뭇의 도롱이집(도롱이나방의 집)’을 은행나무 가지에 거는 행위라는 점에서, 은행나무에게 어떤 해를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행이 상황에 대한 운명적 수용을 나타낸다는 ③은 적절하지 않다.

고전 소설

[20~23]

작자 미상, 「최고운전」

전기체의 고전 소설로서 영웅적, 도술적, 설화적인 성격의 작품이다. 최고운, 즉 최치원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으며, 당대 중세적 질서의 위기를 문제 삼고 있다.

조선 시대의 많은 영웅 소설(英雄小說)이 전쟁을 소재로 하여 민족의 영웅을 창조하고 있음에 반해, 이 작품은 우리 민족의 뛰어난 문재(文才)를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역력한 점이 큰 특색이다. 한문본과 국문본으로 전하며, 줄거리는 비슷하나 그 표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 글의 내용 전개 이해

[정답] ①

글의 내용 전개를 살펴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제시된 지문과 도식화한 서사 구조에 따르면, 장애물과 해결 수단의 등장은 낙양 성문에서부터 오문을 거치는 과정에서이다. 먼저, 낙양 성문에서는 중국의 학사와 수수께끼로 문답을 주고받았으므로 장애물과 해결 수단이 모두 수수께끼이다. 이후의 장애물로는 각각 궐문, 음악 소리, 흰 코끼리, 학사들의 질문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수단으로는 각각 높이가 50자나 되는 모자, 구렁이(흰색 부적), 누런 벌(황색 부적), 시 등이다. 따라서 ㄱ~ㄷ에 해당되는 해결 수단으로는 ‘50자 모자, 구렁이, 누런 벌, 시’이다.

21. 사건 진행에 대한 해석

[정답] ①

‘사건’의 진행 과정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문제이다. ‘최고운전’은 우리 민족의 뛰어난 문재(文才)를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짙은 작품이다. 특히 지문으로 제시된 부분에서는 중국 황제의 위협적인 계략에 뛰어난 학식과 지혜로 여유 있게 대응하는 최치원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대국(중국)에 대한 소국(우리 나라)의 자존을 보여 주고 있다(②, ④).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주인공 최치원의 비범한 능력을 알 수 있다(③). 또한 이 과정은 개인 최치원이 중국 황제의 부당한 위협에 맞서는 과정(⑤)이기도 하다.

① 지문의 앞 부분에 제시된 줄거리에서 주인공이 외딴 섬에 버려졌던 사실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이후의 과정이 주인공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2.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 파악 (정답) ①

㉠과 <보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의미보다는 그 이면에 깔린 화자의 의도를 읽어야 한다. ㉠에서는 우리 나라를 ‘소국’, 중국을 ‘대국’이라고 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상대를 높이는 듯이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국의 궤문이 소국의 궤문보다 낮다고 함으로써 상대를 조롱하고 있다. <보기>에서도 을지문덕은 ‘우중문이 천문을 환히 아는 계책과 지리를 꿰뚫은 해아림으로 싸움에 이겼다’고 함으로써 상대를 높이는 듯이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계책과 해아림이 모두 바닥이 났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함으로써 상대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23. 단어의 의미 차이 파악 (정답) ③

㉡와 ㉢는 모두 똑같은 ‘장막’이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 ㉡는 중국 황제가 최치원의 지혜와 학식을 가늠해 보려고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도구이다. 그리고 ㉢는 최치원의 기이한 능력과 재능에 탄복한 황제가 그를 황제와 같은 정도로 예우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장치이다. 따라서 ㉡는 ‘시험’의 의미를, ㉢는 ‘예우’의 의미를 띤다. ㉤의 경우, ㉡가 직접적인 ‘위협’의 도구가 되지 못하며, 또한 ㉢를 용서의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과 파

[24~27]

진화 과정에서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하는 이유

24. 핵심 정보의 파악 (정답) ⑤

글쓰기가 하고자 하는 말은 첫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쓰기는 ‘인간의 호홉 기관이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를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후, 이를 진화의 과정 속에서 설명해 나가는 방향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글쓰기가 다룬 핵심 문제는 ㉤와 같은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글의 마지막 문장 ‘질식의 원인이 되는 ~ 불합리한 구조를 지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5. 구체적 상황에 적용 (정답) ②

폐어 단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는 두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문단에서 ‘그런데 몸집이 커지면서 ~ 폐어(肺魚) 단계의 호홉계 구조이다’라고 언급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여기서 언급한 부분은 ‘아가미’와 ‘허파’, 콧구멍에서 입천장을 뚫고 들어가는 입과 아가미 사이에 자리 잡게 된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의 세 가지이다.

26. 다른 상황에 적용 (정답) ①

㉠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맞추어 조금씩 바꾸는 것을 말한다. 즉, 임시변통으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인데, 이를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는 ㉠이 적절하다.

법률도 제정된 초기에는 별 무리 없이 적용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여러 이익이 상충하게 되고 그에 따라 조금씩 법률을 개정하게 되며, 그에 따라 현실에서 서로 법률끼리 충돌하게 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

27. 세부 내용의 이해 (정답) ②

인간이 고등 척추 동물에 해당하지만 진화 단계의 최정점에 있다는 언급은 없으며, 호홉계 구조가 이상적인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인간의 호홉계 구조는 오히려 쉽게 질식할 수 있을 정도로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글쓴이는 설명하고 있다.

사 회

[28~32]

선거에서 신문의 영향력

28. 세부 내용의 파악 (정답) ⑤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신문들은 후보의 정치적 신념, 소속 정당, 정책을 분석하여 자신의 입장과 같거나 그것에 근접한 후보를 선택하여 지지해 왔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신문이 후보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여 지지 후보를 선택하기는 하지만, 유권자의 표심까지 분석하는 것은 아니므로 ㉤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 ① ‘보강 효과 이론’은 미디어 메시지가 개인의 기존 태도와 의견을 보강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다.
- ② ‘선별 효과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미디어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인지한다고 했다.
- ③ 공정한 보도를 사명으로 하는 신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가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④ 1958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뉴욕 포스트』가 록펠러 후보를 지지해 그의 당선에 기여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고 했다.

29. 논지 전개 방식 (정답) ①

이 글은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많은 신문이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면서, 1958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뉴욕 포스트』가 록펠러 후보를 지지했던 사례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또한, ‘선별 효과 이론’ 및 ‘보강 효과 이론’과 같은 이론을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상반된 두 주장을 비판하거나,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30. 어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①

㉠의 ‘논란거리’는 네 번째 문단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네 번째 문단에서는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의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정치 세력이 신문을 지배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 ②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가 후보에 대한 독자의 판단을 선점하려는 비민주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일부 정치 세력이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을 정치 선전에 이용하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④ 세 번째 문단에서 제시된 두 이론에 따르면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⑤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가 언론의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고 했다.

31. 다른 사례에 적용

정답 ②

[A]에서는 ‘선별 효과 이론’과 ‘보강 효과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이론에 적용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이다. ②는 제시된 이론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언론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이다.

32. 어휘의 사전적 의미

정답 ②

㉡의 ‘담보’는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함.’의 뜻이다.

기 술

[33~36]

기술 혁신과 부가 비용

33. 현실에의 적용

정답 ④

㉠의 예는 여러 번의 공정을 거쳐야 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쉽고 편리하게 만든 것을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 가지 일을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거쳐야 할 단계를 통합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③은 여러 번 해야 할 일을 몰아서 한 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⑤와는 다르다.

34. 내용의 이해

정답 ③

<보기>는 플로트 공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플로트 공정의 핵심은 탱크 가마에서 나온 녹은 유리가 바로 주석 욕탕 위를 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 탱크 가마, ㉡가 주석 욕탕임을 알 수 있다. ㉢는 서랭 터널, ㉣는 롤러임을 세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35. 내용의 추리

정답 ⑤

유리 제조 공정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해도 투자 비용 때문에 플로트 공정을 개발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필딩턴 정도 엄청난 투자 비용을 알았다면 개발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고한 부분에서 ⑤는 적절한 진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6. 상황에 적절한 한자 성어

정답 ①

㉢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짚는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기술 혁신을 주도하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한자 성어는 ‘옛 것을 연구하여 새 지식이나 견해를 찾아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온고지신(溫故知新)’이다.

수필/고전 시가

[37~43]

(가) 조지훈, 「멋 설(說)」

(나) 이 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37. 작품의 공통점

정답 ④

(가)의 ‘한 마리 밥과 산나물로 ~ 살아 있는 복이 족지 않은가. 시를 읊을 뚝 두덩이 있고 ~ 세상에 허물할 이가 누군가.’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글쓴이는 우주에서 자적(自適)하면서 여유와 멋을 누리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나)의 시적 화자는 자연 속에 묻혀 살면서 수양에 힘쓰는 삶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가)와 (나)에는 글쓴이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잘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의 공통점으로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38. 화자 및 글쓴이의 태도 이해와 적용

정답 ①

(나)에 드러난 시적 화자의 입장을 바탕으로, (가)에 드러나 있는 글쓴이의 관점 및 내용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유형의 문제이다. (나)의 시적 화자는 자연 속에서 지내면서 수양에 힘쓰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 그리고 (가)의 글쓴이는 세상의 일에 집착하지 않고 우주를 자적(自適)하면서 삶의 여유와 멋을 향유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시적 화자가 (가)의 글에 발문(跋文)을 써 준다면, 세상살이의 변화와 굴곡(屈曲)에 집착하지 않고 자적(自適)하면서 멋을 누리는 모습에 대해 언급한 ①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② (가)의 글쓴이가 인간의 이욕(利慾)에 매여 사는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고, 스스로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밝혀 적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에서는 세상의 일에 집착하지 않는 여유와 멋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③ (나)의 화자가 자신의 현재 처지를 곤궁(困窮)하게 생

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 ④ (가)의 ‘행복이란 찾을수록 멀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으로 볼 때, 행복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를 제시한 글로 볼 수 없다.
- ⑤ (가)는 지조(志操)를 잃지 않는 삶과 관련된 글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39.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정답] ④

(가)에 ‘어떤 이’의 말을 인용한 흔적은 엿보이나, 옛사람의 작품을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가)의 글쓴이는 자신의 괴로움을 강조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④는 적절하지 않다.

- ① ‘~ 무슨 멋이 있겠는가.’, ‘~ 있다 하라.’, ‘~ 슬프다, 복을 찾는 사람이여. ~ 아닌가.’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 ② ‘다시 왜 사는가. ~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사나 보다.’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멋을 멋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상(無常)인가 하면 무상을 무상하게 하는 것이 또한 멋이다.’, ‘우주를 자적(自適)하면 우주는 멋이었다. 우주에 회의(懷疑)하면 우주는 슬픈 속(俗)이었다.’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 ⑤ ‘황국(黃菊)이 웃는지라’, ‘유위전변(有爲轉變)’, ‘방우자(放牛子)’, ‘~ 괴롭다 하느뇨.’, ‘~ 멋을 삼노라.’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40. 글쓴이의 입장 이해와 적용 [정답] ①

(가)의 글쓴이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므로 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일상(一床)의 서(書)가 있으니 ~ 죽하지 않은가.’와 연결된다.
- ③ ‘우주를 자적(自適)하는 태도와 연결된다.
- ④ ‘알려고 함으로써 멋을 삼노라.’와 연결된다.
- ⑤ ‘시를 읊을 동쪽 두단이 있고 발을 씻을 물이 있으니 ~’라는 내용과 연결된다.

41. 시어의 이해와 감상 [정답] ②

[B]에서는 순박한 풍속이 사라지지 않았고 인간의 본성은 착한 것이라고 노래하면서, ‘허다영재(許多英才 : 많은 슬기로운 사람들)’를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A]의 ‘허물이나 업고자’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가운데 병으로 늙어 가면서, 사람으로서의 허물이나 없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B]의 ‘허다영재(許多英才 : 슬기로운 사람들)’는 [A]의 ‘허물이나 업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은 이해·감상이다. ‘현학적(學術的)’은 학문이나 지식을 뽐내는 태도를 이르는 말이다.

42. 시적 화자의 정서의 유사성 [정답] ⑤

[A]에서 시적 화자는 자연 속에서 안개와 노을로 집을 삼고 바람과 달로 벼를 삼아 태평스럽게 지내는 중에 병으로 늙어 가고 있다. 그러나 시적 화자는 병으로 인해 괴로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중에 병이 들고 늙어 가지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허물이나 없었으면 하는 시적 화자의 소박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 친화적인 삶의 자세와 여유로운 정서가 드러나 있는 것이다.

⑤의 화자는 굶주림으로 목숨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한가닥 굳은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처지를 힘들게 인식한다는 점에서, [A]의 자연 친화적인 자세나 여유로운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43. 어휘의 의미 및 성격 이해 [정답] ③

- ①의 ‘대중이 없다’는 ‘기준이나 표준이 없이 뒤숭숭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말이다. 그런데 ③의 ‘좌지우지(左之右之)하다’는 ‘제 마음대로 다루거나 휘두르다’라는 뜻이므로, ①의 의미와는 그 성격이 이질적이다.
- ② 갈팡질팡하다 : 갈피를 잡지 못하여 이리저리 헤매다.
- ④ 우왕좌왕(右往左往)하다 : 이리저리 오락가락하며 일이 나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지 못하고 망설이다.

언 어

[44~47]

문자의 분류와 한글의 문자학적 특성

44. 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 ②

첫째 문단에 의하면, 음절 문자는 일본의 가나 문자와 같이 음절 전체를 하나의 글자로 나타낸 것이고, 음운 문자는 영어 알파벳과 같이 자음과 모음 각각을 글자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음운 문자는 음절 문자보다 훨씬 글자 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 번째 문단에서도 ‘음운 문자는 적은 수의 글자로 문자 생활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②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다.

①은 첫째 문단, ③과 ④는 넷째 문단, ⑤는 셋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45. 정보 간의 관계 이해 [정답] ③

이 문제는 넷째 문단의 내용을 그대로 도표로 정리하고, 해당 부분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는 유형이다.

넷째 문단에 의하면, 한자는 표의 문자지만, 외국어 고유 명사를 표기할 때에는 주로 글자의 음을 이용하므로 음절 문자의 특성도 가진다고 하였다. 또 한글은 음운 문자이면서 자질 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자음과 모음을

한 글자로 모아 씹으로써 문자 운용의 관점에서 볼 때 음절 문자의 특성까지 가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46. 내용 생성 및 종합하기

(정답) ④

한글은 가획을 통해 소리를 자형(字形)과 관련시킨다는, 즉 자형이 음운 자질을 반영한다(③)는 점에서 ‘자질 문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⑤)고 하였다. 예를 들면, 한 글에는 ‘ㄱ’과 ‘ㅋ’, ‘ㄷ’과 ‘ㅌ’처럼 서로 닮은 글자들이 있는데(①), 이는 ‘ㄱ → ㅋ’처럼 원래의 글자에 획을 더해서 소리는 조금 다르지만 발음의 위치가 같은 문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②).

그런데 ④에서 언급한 한자 ‘木(나무 목)’과 ‘林(수풀 림)’은 앞의 글자를 한 번 더 써서 독립된 글자를 만들기는 했지만, 음운 자질과 같은 자질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다. 또 ‘日(해 일)’과 ‘目(눈 목)’의 경우, 언뜻 앞의 글자에 가획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둘 다 상형자로 각각 해와 눈의 모양을 본떴다는 점에서 가획이라 하기 어렵다. 더구나 한자 ‘木(나무 목)’과 ‘林(수풀 림)’, ‘日(해 일)’과 ‘目(눈 목)’은 소리가 전혀 다르게 나기 때문에 글자 모양의 차이가 자질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7. 바꾸어 표현하기

(정답) ③

‘[도토리]’라는 발음을 제시된 조건에 따라 적는 문제이다. 일단, ‘[도토리]’를 음운 문자의 특성을 가지게 하려면 자음과 모음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 따라 모아쓰기를 하면, ①과 ②는 정답에서 제외된다. 또 자질 문자는 원래의 글자에 획을 더해서 소리는 조금 다르지만 발음의 위치가 같은 문자를 말한다고 했으므로, 이의 특성을 모두 갖춘 것을 고르면 ③이 정답이 된다.

예 술

[48~51]

판소리의 이면

48.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이면을 그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질문을 던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①), ‘옥중가’의 한 장면을 예로 들어 소리의 ‘이면’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②). 또한, 사실 내용 그대로를 음악으로 표현해야만 이면을 그렸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사실 내용에 대한 해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③).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각의 관점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도 지적하고 있다(④).

그러나 화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⑤는 바르지 않은 진술이다.

49. 적절한 어구의 추론

(정답) ②

지문의 내용을 보면, ‘그린다’는 말은 소리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청자의 음악 행위를 나타내므로, 이면은 당연히 음악 행위에 의해 구현된 그 무엇, 곧 사실의 내용에 해당된다. 그러나 그 사실의 내용을 제대로 묘사하려면 그 분위기,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의미까지도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면이란, ‘사실의 내용 + 분위기 + 본질적 의미’를 의미하므로, ‘창자가 소리로 표현해 내고자 하는 바탕’이라는 ②가 답으로서 적절하다.

50. 타당성의 준거에 따른 비판

(정답) ②

창자가 사실 내용에 대한 해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면을 그린다는 것은 창자의 주제적 해석을 허용하는 의미도 포함된다. 따라서 창자는 사실 내용을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기존의 음악적 구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며, 독창적인 창법을 의미하는 ‘더늌’도 이러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②는 모든 판소리 청자들이 ‘이면을 잘 그렸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독창적 창법을 개발하려는 창자가 드물기 때문이라고 했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진술이다.

①, ③, ④, ⑤는 모두 판소리 창자들이 이면을 잘 그렸다는 말을 듣기 어려운 이유로 타당하다.

51. 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 ④

㉠, ㉡, ㉢, ㉣는 모두 ‘판소리·잡가 따위의 창’이라는 의미로 쓰인 데 반해, ㉤는 ‘말, 이야기’의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인 문

[52~55]

‘느낌’의 인식

52. 논지 전개 방식 파악

(정답) ④

(라)는 아픔이라는 느낌에 대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이 내가 느끼는 것과 같은지를 입증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해결은 다른 사람의 느낌 자체를 관찰할 방법이 있을 때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기술이 놀라게 발달했을 때 가능하다고 하여 아직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또한 기술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가 하는 것까지는 알 수 없다고 마무리짓고 있다. 따라서 (라)는 오히려 제기된 의문이 과학적인 방법에 의서도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53. 다른 상황에 적용

[정답] ⑤

<보기>의 B는 A의 슬픔과 자신의 슬픔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으나, 단지 자신의 슬픔과 A의 슬픔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즉, B는 A가 우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슬픔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 ① B는 “나도 슬퍼.”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슬픔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다.
- ② B가 A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B가 A의 슬픔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A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슬픔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B가 의문을 갖는 부분은 슬플 때 하는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느낌 그 자체이다.

54. 유사한 오류의 파악

[정답] ①

㉠은 몇몇의 특수한 경우나 몇 개의 우연적 사례를 근거로 하여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이를 보충하여 설명하기에 적절한 것은 ①이다.

55.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 ④

㉠의 ‘치다’는 ‘인정하거나 가정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의미로 쓰인 것은 ④이다.

- ①, ②, ③ 계산에 넣다.
- 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다.

현대 소설

[56~60]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56. 글의 내용과 성격 파악

[정답] ②

(나)의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은 (다)의 ‘단 한 번’과 대비되면서 이후에 서술될 ‘인연’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즉, 계집은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성 서방네 처녀와의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이 강조되고, 그 ‘인연’은 이후의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중심 사건이 되는 것이다.

- ①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거리를 두며 논평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인물을 묘사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가)에서는 인물의 내면을 정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친

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의 ‘단 한 번’과 ‘오늘 밤도 또’에서는 주인공이 그 ‘단 한 번’의 인연에 대해 갖고 있는 애절한 추억과 그 리움을 읽을 수 있다. 심리적 갈등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라)의 ‘물방앗간’은 주인공과 성 서방네 처녀를 이어주는 매개체이다. 과거 상황과 현재 상황의 동질성을 드러내는 장치는 아니다.
- ⑤ (마)에서는 주인공의 미래를 암시하는 복선을 읽을 수 있다. 즉, 동이를 매개로 하여 동이의 어머니(성 서방네 처녀)를 만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57. 글에 대한 토론 내용 이해

[정답] ②

허 생원에게 있어서 ‘봉평’이 갖는 의미는 글 전체를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특히 (가)에 잘 나타나 있다. (가)에서, 허 생원은 장돌이를 시작한 지 이십 년이나 되는데도 봉평 장을 빼는 적이 드물다. 이를 통해, 그가 줄곧 봉평 인근을 돌아다녔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허 생원에게 봉평은 마음의 구심점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애착은 성 서방네 처녀와 맺은 인연에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토론 내용은 ㄱ과 ㄴ이다.

58. 조건에 맞는 문안 쓰기

[정답] ③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소설이면서도 그 시적 표현의 뛰어남으로 인해 작품의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조건 가운데 하나인 작가의 작품 세계가 지닌 특징으로는 소설이면서도 시 작품 못지않은 ‘서정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보기>의 또 다른 조건으로 비유적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것은 ③이다.

59.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 ③

㉠의 ‘밤길’은 보름이 갓 지난, 부드러운 달빛이 흐르는 서정적인 밤길이다. 따라서 ‘밤길’은 허 생원이 추억을 회상하기 위한 적절한 분위기가 마련된 공간이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 공간이다. 세 인물의 어려움과 암담한 처지를 드러내기보다는, 오랜 친분으로 편안해진 이야기 상대와 추억을 회상하기 위한 오붓한 분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60. 조사와 어미의 구분

[정답] ⑤

조사와 어미의 구분을 묻는 문제이다. ㉠~㉣의 ‘는’은 모두 보조사이다. 그러나 ㉤의 ‘는’은 용언 ‘아끼다’의 활용에서 결합된 관형사형 어미이다.